

#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제사장 직분을 회복함

(토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4

## 등잔의 불을 밝히고 향을 피움

성경: 출 27:20-21, 30:7-8, 34-38, 시 141:2, 계 5:8, 8:3-4

### I.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안에서 등잔의 불을 밝히는 것은 제사장에게 속한 봉사, 곧 제사장들의 봉사이다 — 출 27:20-21.

A. 성경의 예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안에서 등잔의 불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합당하게 집회하는 방식을 상징한다.

1. 회막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곳(레 1:1)인 성막은 교회 집회를 보여 주는 예표이다.
2. 성경의 예표에서 등잔의 불을 밝히는 것은 교회로서 함께 모이는 합당한 방식을 보여 준다. 합당하게 집회하는 방식은 등잔의 불을 밝히는 것, 곧 빛을 내는 것이다 — 눅 11:33.
3. 우리가 집회에서 실행하는 모든 것은 기도이든 찬송이든 찬양이든 신언이든, 거룩한 빛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B. 거룩한 사람들이 성소 안에서 거룩한 등잔의 불을 밝힐 필요가 있다 — 출 27:20-21, 30:7-8.

1. 제사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존재하는 사람이다. 모든 방면과 모든 방식에서 제사장이 유일하게 관심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 뱀전 2:5, 9, 계 1:6, 5:9-10.
2. 등잔의 불을 밝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으로 적셔지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 출 27:21.
  - a. 그러한 사람이 성소 안에서 말하고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 등잔의 불을 밝히는 것이다. 그의 모든 행동이 등잔의 불을 밝히는 것이다.
  - b. 거룩한 제사장들이 교회 집회에서 말할 때, 빛이 올라가게 되고 거룩한 처소에 빛이 가득하게 된다 — 고전 14:19, 마 5:15-16, 막 4:21.

C. 성소 안에 있는 빛은 천연적인 빛도 아니고 인공적인 빛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인 신성한 빛, 거룩한 빛, 참된 빛이다 — 요 1:9, 요일 1:5, 계 21:23-24상.

1.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종류의 천연적인 빛과 인공적인 빛에 의해 분열되어 있다 — 사 50:10-11, 고후 11:14.
2.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려면, 우리는 유일하고 참된 빛, 곧 구속하시고 빛 비추시는 우리 하나님의 빛 아래서 살고 행해야 한다 — 계 21:23, 요일 1:5, 7, 엡 5:8-9.
3. 믿는 이들이 모이는 목적은 자격을 갖춘 제사장들에 의해 등잔의 불이 밝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갖기 위한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성소 안에 있는 여러 항목의 기구들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을 볼 수 있고, 또한 지성소 안으로, 곧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깊이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볼 수 있다 — 출 25:23, 31, 30:1.

4. 우리가 교회 집회에서 참되게 등잔의 불을 밝히는 체험을 할 때마다, 반드시 어떤 요소들, 곧 삼일 하나님의 체현(등잔대)과 신성한 본성(금)과 그리스도의 높여진 인성(심지)과 그리스도의 영(기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골 2:9, 벧후 1:4, 롬 1:3-4, 8:9.
5. 등잔의 불을 밝히기 위해 함께 집회하는 것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갖는 영적인 체험의 모든 방면이 포함된다.

## II. 제사장 직분의 주된 위임은 향을 피우는 것이다 — 출 30:7-8.

- A. 등잔의 불을 밝히는 것은 향을 피우는 것과 연결된다 — 출 30:7-8.
  1. 제사장들은 향을 피울 때마다 등잔의 불을 밝혔고, 등잔의 불을 밝힐 때마다 향을 피웠다.
  2.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등잔의 불을 밝힐 때마다) 기도해야 한다. 등잔의 불을 밝히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고, 향을 피우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3. 합당한 기도는 말씀을 읽음으로 얻는 빛에서 비롯되는 기도이다. 말씀에서 오는 빛이 우리를 비추어, 기도할 적합한 말을 갖게 할 것이다.
- B.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 안의 모든 일 중에서 중심이 되는 일이다.
- C. 향을 피우는 것은 기도의 예표이다 — 시 141:2, 눅 1:10-11, 계 5:8, 8:3-4.
  1. 향을 피우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상징한다.
  2. 이러한 종류의 기도는 사실상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이다.
  3. 향의 연기가 가리키는 것은 향이 피워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효력 있게 되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 계 8:3.
  4. 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드러진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를 좌우하며, 신성한 행정의 수행에 동기를 부여한다.
- D. 바르는 거룩한 기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상징하고, 향은 우리의 기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을 상징한다 — 출 30:23-25, 34-38.
  1. 삼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고 감이 있으려면, 우리에게 거룩한 관유를 바르는 것과 향을 피우는 것 모두가 필요하다.
    - a. 기름 바름은 우리가 신성한 요소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셔 온다. 향은 하나님의 누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 b. 이러한 종류의 기도는 달콤한 향기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도 한다.
  2. 하나님께서 거룩한 관유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복합되신 영을 누릴 수 있으며, 거룩한 향인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고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E. 제사장들은 향의 사람들이다. 그들의 일은 주로 향을 피우는 것이다.
  1. 제사장은 향을 피워 내적으로 주님을 접촉하는 사람이다 — 출 30:7-8.
  2. 우리는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를 드릴 수 있도록 섬세한 방식으로 향을 피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3.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기도할 때, 단지 우리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와 그리스도는 기도함으로써 하나가 되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달콤한 향이다 — 시 141:2.
  - a. “주는 향이며 생수니 난 받아들여지겠네 더욱더 기도함으로 달콤한 향기 드리리” — 영한동번 찬송가 813장 9절(참조 한국복음서원 찬송가 587장 8절)
  - b. “늘 하나님 앞에 늘 향을 피우자 늘 등잔에 불 켜고서 주를 찬양하자” — 영한동번 찬송가 791장 후렴(참조 한국복음서원 찬송가 573장 후렴)

##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 제사장의 기도의 세 단계

오늘날 우리가 참 제사장들이 되려면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도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기도란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물로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다른 많은 제물로 적용해야 한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받아들이기 위해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구속하는 피를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이다. 그때 우리는 속에서부터 무언가를 말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의 생각이나 지력에서가 아니라 우리 영 안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를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기도이며, 이것이 기도하는 방법이다.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든 제물로 적용하는 것, 그리스도를 영양분으로 누리는 것, 그런 다음 깊은 속에서부터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표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달콤한 향기이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연합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기도해야 한다고 항상 말하면서도 기도의 합당한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극소수이다. 기도하는 합당한 길은 그리스도를 모든 제물로 적용하고, 그리스도를 음식으로 먹고 우리의 충분한 영양분으로 섭취한 다음, 깊은 속서부터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 세 항목이 참된 기도의 세 단계이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기 위하여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자.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든 제물로 적용해야 한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악이 가득하다는 깊은 자각을 갖는다. 즉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속건제물이나 속죄제물로 적용해야 한다. 우리는 “오, 아버지! 저는 정말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께서 저의 속죄제물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스도는 이 순간에도 저의 속건제물이십니다. 저는 다만 저의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께 나아갑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들은 결코 영, 곧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다른 모든 제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접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제물로 적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에서 부족하고, 이런저런 일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백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모든 약점도 자백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자백

할 때 그리스도를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 소제물, 번제물로 적용하게 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필요가 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누릴 수도 있다. 우리는 기도해 의해 말씀을 읽음으로써, 곧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누린다.

셋째로, 우리는 속에서부터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를 말하고 표현한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우리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다.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달콤한 향기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할 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우리에게 내려올 것이다. 향은 올라가고 영광은 내려온다. 이것이 참된 교통이다. 기도는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빛인 영광은 우리 안으로 비추어 내려온다.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으로 적셔질 것이다.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은 단지 주님께 우리를 위해 이것저것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제물로 적용하고, 충분한 영양분으로 누리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감미로운 향기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 오직 이러한 기도만이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을 우리 안으로 가져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것이다.

이런 기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제물들을 드리고 향을 피우기 위하여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향을 피우는 데에는 실제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나는 깊은 속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제물을 통하여 향을 피우는 제사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체계이다. 만일 이것을 읽는 모든 형제자매가 날마다 제사장의 직분을 실행한다면 오늘날 교회의 전체 상황은 바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토론하는 시간을 향을 피우는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단지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향을 피우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누리며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를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것이 제사장 체계의 합당한 기도이다.

## 성막의 중심적인 항목

지난 장에서 우리는 제사장 체계의 주요 임무는 향을 피우는 것임을 보았다. 우리는 향을 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 안의 모든 일 중에서 중심 되는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막에 바깥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는 것을 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하나님은 바로 이 법궤 위에서 그분의 백성과 만나신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다. 또 그 등잔대와 임재의 떡 상이 있고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는 금향단도 있다. 이것들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다. 성막 밖의 바깥뜰에는 두 가지, 곧 씻기 위한 물두멍과 희생 제물들을 드리는 번제단이 있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여 주는 성막의 그림을 본다면, 분향단이 성막 전체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건축물, 곧 하나님의 거처의 중심이다. 분향단은 사람이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분향단을 위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번제단, 물두멍, 임재의 떡 상, 등잔대는 다 분향단을 위하여 있다. 따라서 분향단은 사람이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예표이며 그림자이다. 성막은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의 예

표이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참된 성막이다. 교회 안에는 법궤인 그리스도의 실재가 있다. 법궤 안에서, 법궤 위에서, 법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실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은 그리스도 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제물을 위한 번제단과, 생명 공급을 위한 임재의 떡 상과, 빛을 위한 등잔대를 가짐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는 향을 피우기 위한 것이다.

### 등잔의 불을 밝히고 향을 피움

이제 우리는 등잔대가 향을 피우는 것과 관계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번제단뿐 아니라 등잔의 불을 켜는 것도 향을 피우는 것과 연관이 있다.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에서 우리는 제사장들이 향을 피울 때마다 등잔의 불을 밝혔고, 등잔의 불을 밝힐 때마다 향을 피운 것을 보았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등잔의 불을 밝힐 때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향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을 피우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등잔의 불을 밝히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등잔의 불을 밝히는 것이다.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로 함께 쉬어야 한다. 제사장들은 등잔의 불을 밝힐 때 또한 향을 피워야 한다.

제사장들은 등잔의 불을 밝히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향을 피우지는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말씀을 읽지 않고 어리석게 어둠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다. 등잔불이 없으면 빛 비춤도 없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곧 등잔의 불을 밝히고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어둠 속에 있을 것이다.

많은 경우 우리는 말씀에 의해 비춤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관념에 따라 천연적인 방식으로 기도한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접촉하기 위해 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죄들이 씻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빛을 받기 위해 말씀을 먼저 읽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질에 따라 천연적인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빛을 받기 위하여 말씀을 읽어야 한다. 우리는 등잔의 불을 밝혀야 한다.

### 빛은 생명에서 나옴

임재의 떡 상은 등잔대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상은 생명을 위한 것이고, 등잔대는 빛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말한다. 생명은 빛이다. 임재의 떡 상에는 생명 공급이 있고 이 생명으로부터 빛이 산출된다. 빛은 생명에서 나온다. 우리가 생명 공급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빛 가운데 있게 된다. 생명은 빛을 산출한다. 만일 우리가 생명 공급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참여하지 않고 이러한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다면, 어둠 속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공급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에게 빛이 있을 것이다. 생명 공급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빛을 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빛을 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빛을 받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생명을 누리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생명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성경으로부터 그만큼 더 많은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 더 자라고 성숙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빛을 받을 것이다. 빛은 생명의 성장에 달려 있다. 우리가 생명 공급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그만큼 빛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며 빛을 갖기 위해서는 생명 공급이 필요하다. 우리가 합당한 방식으로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지만, 빛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임재의 떡, 곧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분을 얻는 것은 한 번만에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다. 매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결코 졸업할 수 없다. 생명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먹어야 한다. 우리가 받는 생명 공급은 빛이 될 것이다. 생명은 빛이다. 그리고 이 빛은 하나님께 향을 피우기 위하여 필요하다. 향을 피우는 것은 빛에 달려 있고, 빛은 생명 공급에 달려 있다.

###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기도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합당한 기도, 곧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 안에 지닌 달콤한 향을 드리려고 한다면, 즉시 기도를 시작할 수 없다. 그 길로 곧장 갈 수 없다. 우리는 먼저 피를 적용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결점과 죄들과 더러움을 자백하기 위하여 제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자백한 후에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피를 적용해야 한다.

자백하며 피를 적용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양분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릴 것이다. 구속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주며 먹이는 임재의 떡이 되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만족을 얻는다. 자연적으로 이러한 내적인 만족에서 빛나고 밝게 하는 무언가가 있게 된다. 그것이 등잔의 불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며 표현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다 달콤한 향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달콤하고 향기로운 요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에게서 나온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과 같을 것이다.

나는 성경의 예표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가르칠 생각이 없다. 내 부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접촉하는 바른길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고 체험하는 합당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보여 주기 위한 교육이다.

이제 우리는 그 방법을 보았다. 우리는 반드시 자백함으로써 번제단에서 출발해야 한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번제단을 피할 수 없다. 어제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 어제 번제단을 지나갔더라도 오늘 여전히 번제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번제단을 만질 뿐 아니라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우리는 피를 적용하기 위하여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면 구속하시는 분께서 우리의 누림이 되실 것이다. 만일 우리의 모든 죄들과 실패들과 실수들과 그릇된 행위들과 결점들과 약점들을 자백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구속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적인 누림과 영양분이 되신다는 느낌을 안에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먹을 때, 그분은 우리의 임재의 떡이 되신다. 여기에 하나의 상이 있는데, 상은 잔치를 의미한다. 우리는 한동안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하여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

너무 빨리 기도하기를 시작해서는 안 되고, 먼저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 그때 우리가 먹은 그리스도인 이 영양분이 우리 안에 흡수된다. 여기에는 얼마 동안의 시간이 걸린다.

상에서 잔치를 누린 후 우리의 영양 공급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등잔대로 이끄실 것이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양 공급은 우리에게 필요한 빛을 산출할 것이다. 속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를 밝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끈다. 그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어떠함이다. 그것은 달콤하신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의 향기이다. 그리스도를 우리 존재 안으로 흡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달콤하고 소중한 어떤 것을 갖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분향단 위에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 등잔을 손질함

등잔대는 기름을 태워서 우리에게 빛을 낸다. 그러나 기름을 태우는 일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 등잔대가 빛을 내기 위해 기름을 태우려면 심지가 필요하다. 젊은이들이 심지가 무엇인지를 아는지 모르겠다. 심지는 등의 기름을 끌어올리거나 태워질 양초의 녹은 밀랍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사용되며, 부드러운 면실을 느슨하게 한 묽음으로 끈 것이다.

등잔대는 한 덩어리의 순금으로 만들어진다. 임재의 떡 상은 금과 나무로 만들어졌고, 분향단도 마찬가지이다. 법제도 금과 나무로 만들어졌다. 과거에 나는 등잔대가 다른 것은 없이 오직 금으로만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에 주님은 등잔대가 금으로만 된 것이 아님을 나에게 보여 주셨다. 만일 그것이 금뿐이라면 타서 우리에게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등잔대에는 심지가 될 아주 부드럽고 가늘고 고운 식물의 생명에 속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심지가 없다면 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가 어떻게 빛을 낼 수 있겠는가? 금은 빛을 내기 위하여 식물의 어떠함, 곧 식물의 생명이 필요하다. 금과 심지와 기름이 더해져 빛을 낼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언제나 석유등이나 양초를 썼는데, 항상 심지에 문제가 있었다. 심지가 너무 많이 탔을 때 까맣게 된다. 너무 타서 까맣게 된 심지를 불똥이라고 한다. 불똥은 심지의 나머지 부분에서 잘라 내어야 한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5장에 부집계와 함께 불똥 그릇이 있다. 제사장들은 부집계를 가지고 불똥을 집어내는데, 집어낸 모든 불똥을 불똥 그릇 속에 넣는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이 누림은 정말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빛을 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심지가 너무 많이 탔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무 많이 타서 너무 낡고 너무 검게 되었다. 등잔을 손질한다는 것은 심지의 까맣게 탄 모든 부분을 자르거나 집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등잔대는 완전히 금으로 만들어졌다. 금은 신성한 본성을 나타내고, 심지는 섬세한 인성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성만 아니라 섬세한 인성을 나타낸다. 섬세한 인성이 신성한 본성인 기름과 협력할 때 빛을 낸다. 그러나 때때로 인간의 성품이 너무 낡고 탔을 때 그것은 별로 유용하지 않다. 그럴 때에는 심지를 잘라 내고 불똥을 집어낼 필요가 있다.

주님을 접촉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실패를 자백하고 피를 적용하기 위하여 제단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고, 그리스도를 먹고 영양 공급을 받도록 우리를 상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때 생명 공급이 우리를 빛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여러 번 우리는 빛 비춤 아래에 있을 때 무언가 너무 낡았다는 것을 깨닫곤 한다. 그것은 찢어 내거나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라 내고 집어낼 필요가 있다. 어제는 좋은 심지였지만, 오늘 아침에는 너무 타 버렸기 때문이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삼 년 전에 신선한 심지들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숯덩이처럼 검게 되었다. 어떤 자매들은 오 주 전에는 갓 만들어진 새 심지처럼 신선했지만 오늘은 까맣게 타 버렸다. 이제 그들은 합당한 심지가 아니다. 그들은 잘라지고 집어내어질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피가 아니다. 그들은 모든 불똥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들은 신선한 빛을 내는 신선한 심지가 될 것이다. 아마 어제까지도 합당한 심지로서 기름을 태우고 빛을 내는 데 매우 신선했음에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너무 탔다. 그러면 합당한 빛을 내기에 너무 낡은 까맣게 탄 심지가 되는 것이다.

### 등잔을 간검함

불똥을 잘라 내는 것은 등잔을 손질하는 것이고, 등에 기름을 넣는 것은 등잔을 간검하는 것이다. 등잔불이 밤새도록 탄 후 제사장들은 아침에 등잔을 손질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심지의 검게 탄 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불똥을 잘라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녁에는 충분한 기름을 채워서 등잔을 간검해야 한다. 만일 기름이 부족하다면 등잔불은 꺼지고 말 것이다.

때로 심지는 신선하지만 기름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등잔을 손질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간검할 필요도 있다. 불똥을 잘라 내는 것도 필요하고, 기름을 넣는 것도 필요하다. 기름은 그 영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타기 위하여 그 영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간다면, 나는 가르치시는 영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보여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일을 빨리 할 수 없다. 지름길은 없다. 주님은 분명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서두를 수 없다. 우리는 번제단에 머문 다음, 우리의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잠시 누리기 위하여 임재의 떡 상을 향해 가야 한다. 그런 다음 방향을 바꾸어 등잔을 향해 가야 한다. 때때로 심지의 검게 탄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등잔을 손질해야 한다. 때로는 기름으로 등잔을 채우기도 해야 한다. 그럴 때 합당하고 충분한 빛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말하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때이다.

우리는 우리의 결점들과 죄들과 실패들을 자백해야 한다. 그리고 피를 적용해야 한다. 심지의 낡고 너무 탄 부분은 집어내야 한다. 우리는 깨끗한 심지가 되어야 하고 기름이 부족한지를 관심해야 한다. 그때 합당한 심지와 충분한 기름이 있는 등잔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빛을 줄 것이고, 이 빛 아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6년, 1권, 제사장 직분, 810-812, 818-819, 821-822, 831-832, 833-835, 837-840쪽)*